# 홈플러스, 운명의 기로… 즉시항고 임박에 2000억 확보 사활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17일 회생 재개 여부 분수령**
**MBK·메리츠 책임 공방 평행선**
**직원·협력사 연쇄 피해 우려**
**정부, 4400억+α 지원체계 가동**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사실상 파산 기로에 선 홈플러스가 오는 17일 즉시항고 마감 시한을 앞두고 마지막 생존 승부에 나섰다.

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수정안의 가결 기한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결정타는 회생의 마지노선으로 꼽힌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조달 실패였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메리츠 3사(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고객분들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2주 내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하면 재도의 고안, 즉 회생절차의 재개가 가능하다"라면서 메리츠금융그룹에 운영자금 대출을 거듭 간청했다.

자금 책임을 둘러싼 대주주와 채권단 간의 평행선은 여전하다. 메리츠 측은 홈플러스 위기의 근본 원인이 MBK의 경영 실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메리츠는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는 자산 14조 원 규모의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MBK 측은 "메리츠 3사가 2000억 원을 대여해 주는 것을 전제로 그중 1000억 원에 관해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다"라며 맞섰다. 이미 회사 차원의 연대보증 제공과 김 회장의 개인 증여 등으로 수천억 원 규모를 지원해 책임 범위가 한계에 달했다는 논리다.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최종 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1만 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들의 대규모 연쇄 도산이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신선식품 공급업체 등 4603개 협력사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생존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들이 받지 못한 납품대금은 평균 7억 7400만 원에 이른다.

홈플러스 위기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대형마트 업황 부진이 꼽힌다. 그러나 단순한 업황 악화로만 보기는 어렵다. 2015년 MBK파트너스 인수 당시 동원된 막대한 빚과 이자 부담이 회사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MBK는 점포와 부동산을 매각해 4조 원대 현금을 확보했으나, 이 돈이 온라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보다 인수 금융을 갚는 데 주로 쓰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부 점포를 매각 후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임대료 부담까지 키우면서, 구조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대주주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홈플러스의 청산 위기에 노조와 정치권도 나섰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청산 절차로 이어진다면 노동자와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경제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비롯한 긴급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역시 "법원의 회생폐지 결정은 홈플러스에 생계를 의탁한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라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MBK홈플러스사태해결TF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대해 각각 책임 소재를 물었다. 이들은 금감원에는 MBK에 대한 제재 심의를 열고 징계 결과 공유를, 검찰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빠른 수사를 요구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정부도 긴급 수습에 나섰다. 정부는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4400억 원+α'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조치는 직접적인 구제금융이 아닌 민생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안전망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롯데百, AI로 즐기는 '쇼핑축제' 개막

**타임빌라스 수원서 12일까지 운영**
**스마트미러·AI 키오스크 체험**

롯데백화점이 3일 이색 축제 '타빌페(TIMEVILLAS FESTA) with AI'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타빌페는 AI와 쇼핑을 결합한 특별 행사다.

타임빌라스 수원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고객이 AI 및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맞춤형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사맛디', 'XBRUSH', '화인로보틱스' 등 AI 우수 기업들이 행사에 대거 참여한다. 쇼핑몰 2층에서는 AI 기술로 고객의 이미지를 분석해 맞춤형 향수를 제안하는 '스마트미러' 및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AI 키오스크' 운영하고, 1층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무술, 판다 로봇의 공연 등도 펼친다. 한편 기간 중에는 'AI 가전 페스타'도 열린다. 삼성전자, LG전자가 참여해 에어컨, 세탁기, 로봇 청소기 등 AI 기술이 탑재된 대표 가전 제품들을 선보인다.

기간 중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 상품권 사은을 제공하고, F&B 매장에서 AI 추천 메뉴 주문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타임빌라스 수원에서 열린 '타빌페 with AI'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공연을 관람하는 고객들의 모습. /롯데쇼핑

# 현대百, ESG 최고등급 6회 연속 획득

**서스틴베스트 평가서 AA등급**
**ESG 베스트 기업 100에도 선정**

현대백화점이 ESG 평가 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하반기 이후 6회 연속 AA등급 획득이다.

서스틴베스트는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뢰를 받아 매년 상·하반기에 상장 및 비상장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총 1305개 기업을 평가했으며, 최고 등급인 AA등급은 전체 기업 중 11.7%에만 주어졌다.

현대백화점은 특히 최고 등급 획득과 동시에 '2026년 ESG 베스트 기업 100'에도 이름을 올렸다. 서스틴베스트는 상장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2조 원 이상 기업 50곳,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 30곳, 5000억원 미만 기업 20곳 등 총 100개사를 베스트 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서스틴베스트와 더불어 국내 대표 ESG 평가 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도 유통업계에서 유일하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 현대그린푸드, 급식업계 저탄소 돈육 도입

**전국 단체급식장에 연 30톤 공급**
**그린데이 사업장 중심 메뉴 확대**

현대그린푸드가 단체급식 업계 최초로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구내식당 식단에 도입하며 친환경 급식 확대에 나선다.

저탄소 식단 운영을 넘어 식재료까지 친환경으로 전환하며 ESG 경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이달부터 저탄소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전국 단체급식장에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연간 30톤 규모로, 회사가 단체급식에 사용하는 전체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약 10%에 해당한다.

저탄소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증한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사육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반 축산물보다 10% 이상 줄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그린푸드는 2021년부터 저탄소 식단 프로그램인 '그린데이'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 650여 개 단체급식 사업장 가운데 병원 등을 제외한 약 600개 사업장에서 월 2회 저탄소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그린데이 운영 사업장을 중심으로 돈육마늘종비빔밥, 제육양배추덮밥, 돈육라구파스타 등 저탄소 돈육을 활용한 메뉴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저탄소 돈육 생산량 확대에 맞춰 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관련 메뉴 개발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친환경 식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더벤티-젠레스 존 제로**

# 판타지 게임감성 담은 보랏빛 신메뉴 선봬

**우베·청포도 활용 메뉴 3종**

더벤티가 판타지 액션 게임 '젠레스 존 제로'와 협업해 신메뉴 3종과 한정 굿즈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별빛 축제로의 초대'를 콘셉트로 더벤티 브랜드 컬러와 게임 캐릭터의 보라색을 활용했다. 신메뉴는 우베를 활용한 '우베 흑임자폼 라떼', '우베 크림 슈', 청포도를 더한 '퍼플 뱅쇼 스파클링' 등 3종이다. 한정 프로모션 세트도 출시한다. '휴고 퍼플 뱅쇼 세트'와 '비비안 우베 라떼 세트'로 구성되며, 음료와 함께 캐릭터 피규어 1종, 포토카드 1장이 랜덤 제공된다. 프로모션은 오는 23일까지 더벤티 앱 픽업 오더와 전국 참여 매장에서 진행되며, 참여 매장 정보는 공식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GS25 단백질 음료, 바나나우유 성장률 추월

**상반기 매출 전년比 26.8% 증가**
**2020년 이후 매출 15배 규모 성장**

GS25가 올해 상반기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단백질 음료 카테고리 매출이 바나나우유 카테고리 매출 신장률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단백질 음료 카테고리 매출이 바나나우유 카테고리 매출 신장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S25에 따르면 올해 1월~6월 단백질 음료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8% 신장하며 바나나우유 카테고리 매출을 3.7%p 앞질렀다. 동기간, 초코우유와 딸기우유 카테고리 매출과 비교해서는 각각 44.6%, 158%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GS25는 단백질 음료를 전개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종에 불과했던 초코·바나나·딸기 단백질 음료 등을 중심으로 현재 50여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동기간, 단백질 음료 매출은 무려 15배 규모로 급증했다.

고객이 GS25 단백질 음료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GS리테일

GS25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단백질 음료 수요 잡기에 나선다. GS25는 7월 한 달간 단백질 음료 40여 종을 대상으로 1+1, 2+1 등의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